



대한잉크의 무용제 오프셋 잉크

SolFree



3년간 10억원 투자 ... 500만불 수출 예상

우리나라 최초의 인쇄잉크 전문메이커인 대한잉크 (대표 신현, www.daihanink.com)는 최근 세계 최초로 완전 무용제형 오프셋 잉크인 'Solfree'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유기용제 함량 0.07% 미만으로 사실상 무용제화 실현

기존 저공해 오프셋 잉크의 대명사인 대두유잉크는 기준이 유기용제의 함량이 아니라 대두유 함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미국 대두유협회에서 인증한 대두유잉크 마크는 잉크의 종류별로 최소 대두유 함량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잉크에 인증서를 교부한 형태였다. 따라서 이들 대두유 잉크도 종전의 오프셋 잉크보다는 유기용제 함량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완전 무용제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10% 전후의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바이오잉크나 에코잉크로 불리는 저공해 잉크가 여기에 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한잉크에서 개발한 무용제 오프셋 잉크인 'SolFree'는 유기용제 함량이 0.07% 미만으로 사실상 완전 무용제화를 달성한 제품이다. 3년간의 연구와 막대한 투자비의 결실인 무용제 잉크는 대한잉크가 국내 최대의 인쇄잉크 전문연구소를 운영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년내 300억원 이상 국내시장 대체 기대

무용제잉크인 'Solfree'는 아동용 서적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용, 의약품용 포장재를 비롯하여 향후 환경보호를 기업의 경영이념으로 제정하고 있는 국내 여러기업의 인쇄물에 폭 넓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인쇄잉크 메이커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일본 소니사의 그린파트너를 획득한 바 있는 대한잉크는 이번 무용제 잉크의 개발로 환경경영의 기업이념에 부합되는 또 하나의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무용제잉크는 휘발성유기용제의 제로화와 함께 중금속 함유 문제에서도 유럽유해물질 환경기준인 RoHs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 인쇄잉크 자체의 수출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기업의 인쇄물 수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잉크는 얼마전에도 최고급 오프셋 잉크인 '비단'을 개발하면서 선진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진공용기를 도입하여 국내 처음으로 진공포장잉크를 선보인 바 있다.

대한잉크 신현 사장은 "이번 제품개발로 향후 2년내 약 300억원의 국내시장대체 효과가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의 인쇄잉크 기술력을 확보한 만큼 선진국수출 시장확보를 통해 2009년까지 약 500만불의 수출을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